

글로벌 은행산업 트렌드

글로벌은행부(3705-6156)

- **지난주 글로벌 은행산업 주요 이슈는 ▲중동 사태 발발의 글로벌 은행권 영향 ▲중국, 대형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특별국채 발행 ▲사모신용 부문 우려 지속, 은행 영향에 유의**
 - CLARITY Act 입법 지연 속 디지털자산 업체에 첫 제한적 마스터 계좌 승인 등
- **미국 은행권 주가는 중동 사태 영향으로 주요국 하락. 중국은 상승**
 - 미국 -3%, 유럽 -10.4%, 일본 -8.3%, 중국 2.4%, 한국 -8.3%

■ 중동 사태 발발의 글로벌 은행권 영향

- 중동 사태가 유로존 은행들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. 다만,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는 차입자들의 상환 부담으로 작용해 은행 건전성에 타격 우려(ECB)
 - 유로존 은행들의 對이란·이스라엘 직접 익스포저는 손실흡수능력에 비해 미미(자산 측면 익스포저는 핵심자본의 0.7%, 부채 측면 0.6%). 인접국가까지 포함하더라도 익스포저는 상당히 제한적(감독 대상 은행들의 총자산 대비 1%를 하회)
- 중국 은행들의 중동 지역 대출 규모는 '24년 \$40억에서 '25년 \$157억으로 급증하며, 사상 최대치 기록. 홍콩 통화청^{HKMA},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^{NFRA}은 은행들에게 중동지역 대출·채권 익스포저 점검 및 보고를 요구
 - 일부 금융기관들은 중동 지역 익스포저 축소에 착수. 한 대형은행은 Abu Dhabi의 한 금융기관에 제공한 양자 대출과 추가 인출을 제한. 중형은행 한 곳도 중동 차입자에 제공된 신디케이트 대출 매각을 시도
- 한편, 무디스는 중동 분쟁이 단기간 지속되는 기본 시나리오* 하에서 걸프 지역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. 다만, 에너지 교역 흐름이 장기간 차질을 빚거나 공격 확대 시 은행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
 - 중동 사태가 걸프국 은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은행의 운영·유동성 리스크, 경제 둔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, 정부-은행 연계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등을 포함

* △호르무즈 해협이 몇 주간 일시 폐쇄 △에너지 인프라 피해 제한 △지역 항공운항 재개

■ 중국, 대형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특별국채 발행 예정

- 재정부는 경기 둔화 및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올해 3,000억 위안(약 \$440억)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. 동 자금은 대형 상업은행들의 핵심 자기자본^{Core Tier1} 확충에 활용 예정
 - 지난해에는 중국은행^{BoC}, 우정저축은행^{PSBC}을 포함한 4개 은행이 \$690억의 자본을 투입 받았으며, 올해는 작년 제외되었던 공상은행^{ICBC}, 농업은행^{ABC} 등도 포함

■ 사모신용 부문 우려 지속, 은행 영향에 유의

- 지난달 말 영국 모기지대출기관 Market Financial Solutions^{MFS} 파산으로 Barclays, Banco Santander, Wells Fargo, Jefferies 등이 손실 위험에 직면
 - Jefferies의 MFS 익스포저(\$1.3억)은 은행의 구조화 대출 중 일부에 불과하며, 잠재 손실도 자본 대비 제한적. 다만, Jefferies가 다른 중형 투자은행들보다 대출·투자에 있어 위험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 확대
 - 한편, 일본 2대 은행인 SMBC도 MFS 익스포저를 £1억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3.4일 주가가 4월 이후 최대로 급락
- Goldman Sachs의 CEO David Solomon은 사모신용 시장에 거품^{frothiness}이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부연
 - 반면, Goldman Sachs의 전 CEO Lloyds Blankfein은 사모신용 시장에서의 문제가 더 큰 금융위기의 촉발점^{flashpoint}이 될 수 있다고 지적

■ CLARITY Act 입법 지연 속 디지털자산 업체에 첫 제한적 마스터 계좌 승인

- 미국 은행권이 백악관의 CLARITY Act 절충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한 의구심 확대. 최근 중동 사태 발발 역시 입법 절차 지연 요인
 - 트럼프 대통령은 Clarity Act 통과를 촉구하며 은행들이 지난해 법으로 제정된 GENIUS Act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
- 캔자스시티 연은은 Kraken Financial에 제한적 목적의 마스터 계좌(기한 1년)를 승인. 이는 미국 역사상 디지털자산 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의 결제 인프라에 직접 접근한 첫 사례
 - 은행 업계는 동 결정이 연준 이사회의 공식 규칙 제정절차를 우회한 것이며, 불법 금융과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즉각 비판

[참고] 국내외 은행산업 주가 및 CDS

지역	은행	주가(%)					CDS(bp)				
		'25년 중	'26. 2월 중	2.16~ 20일	2.23~ 27일	3.2~ 6일	'25년 말	'26.2월 말	2.27일	3.6일	전주비
미국	JPMorgan	36.0	-1.8	2.7	-3.4	-3.6	42	43	43	45	2
	BofA	26.7	-6.3	1.0	-6.1	-2.4	53	58	58	62	4
	Wells Fargo	34.0	-10.0	2.0	-8.2	-1.3	48	52	52	53	1
	Citi	69.6	-4.8	4.6	-5.0	-3.3	54	59	59	63	4
	Goldman Sachs	57.4	-8.1	1.9	-6.8	-4.4	56	62	62	65	3
	평균	44.7	-6.2	2.4	-5.9	-3.0	51	55	55	58	3
유럽	HSBC	51.3	8.4	4.1	8.0	-10.7	33	34	34	36	2
	BNP Paribas	37.5	4.7	6.0	0.8	-9.6	43	39	39	41	2
	Credit Agricole	32.6	2.8	4.5	1.2	-10.6	38	36	36	37	1
	Deutsche Bank	101.8	-9.4	4.8	-3.5	-9.8	50	51	51	55	4
	Santander	127.6	0.1	7.2	0.3	-11.2	37	39	39	41	2
	Barclays	77.3	-6.9	4.4	-4.4	-10.8	62	59	59	67	8
	Societe General	153.8	0.1	10.6	0.1	-9.9	46	43	43	45	2
	평균	83.1	0.0	5.9	0.4	-10.4	44	43	43	46	3
일본	MUFG	35.6	5.8	-3.7	0.9	-7.0	36	40	40	41	1
	SMBC	35.4	9.6	-1.6	0.6	-9.6	36	36	36	37	1
	평균	35.5	7.7	-2.7	0.7	-8.3	36	38	38	39	1
중국	공상은행	12.9	-4.6	0.0	-2.7	2.7	40	41	41	42	1
	중국은행	2.4	-1.7	0.0	-0.6	2.1	47	48	48	49	1
	평균	7.6	-3.1	0.0	-1.6	2.4	43	44	44	46	2
한국	KB	46.7	17.6	0.5	-5.7	-8.3	26	27	27	29	2
	신한	59.0	14.4	-1.5	-4.9	-6.6	39	34	34	37	3
	하나	63.2	21.2	2.0	-7.1	-10.2	33	34	34	36	2
	우리	83.9	19.0	4.7	-11.8	-8.2	37	41	41	41	0
	평균	63.2	18.1	1.4	-7.4	-8.3	34	34	34	36	2

자료: Bloomberg, 주1: 한국 주가는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 기준, CDS는 은행 기준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156 혹은 wjhwang@kcf.or.kr, 홈페이지: www.kcf.or.kr